

통권
260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5 2021

늘푸른물결



“2030 탈석탄! 2050 탄소중립!”

세계 지구의날을 맞아 지난 4월 2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앞에서 2030탈석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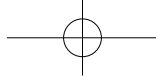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자연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차 례



당진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맞아 기후행동 진행



'벚꽃길 걷go, 건강 챙기고go, 지구 생각하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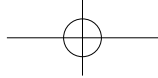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 ▶ 발행 일 2021. 5. 10.
- ▶ 발행 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 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angjin.kfem.or.kr

- 3 이달의 시
|水墨 정원9-번짐 / 장석남
- 4 지역환경초점1
|당진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맞아 기후행동 진행
- 6 지역환경초점2
|'벚꽃길 걷go, 건강 챙기고go, 지구 생각하go'
- 8 지역환경초점3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 10 지역환경초점4
|당진지역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전국 9위
- 12 지역환경단신1
|"서산민항 유치,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 위반하는 모순"
- 13 지역환경단신2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14 전국환경초점1
|기후정상회의, 대통령은 준비한 것이 없었다.
- 15 전국환경초점2
|지구를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 16 석탄씨를 구해줘
|9화 고양이와 기후변화
- 18 4월 활동소식
- 20 4월 살림살이
- 21 5월 주요사업 계획
- 22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3 함께해요.
- 24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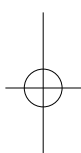




水墨 정원 9 - 번짐

장석남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되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되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히다
 또 한번—저녁은 번져 밤이 되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의 오두막 한채 번져서
 봄 나비 한마리 날아온다



장석남

1965년 인천 출생,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등단, 시집 『왼쪽 가슴 아래쪽에 온 통증』 창비, 2001



당진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맞아 기후행동 진행

석탄화력 2030년까지 폐쇄, 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전환 촉구



지난 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당진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2일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앞에서 2030 탈석탄과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전부 폐쇄하고, 현대제철도 석탄 대신 그린수소로 전환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후행동은 기후위기 충남행동에서 진행한 충남 동시다발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당진은 당진 화력과 현대제철, 태안은 서부발전 본사와 태안화력, 보령은 중부발전과 보령화력 앞에서 개최됐다.

기후행동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 2030년까지 전부 폐쇄 △석탄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전환 △제철소 석탄 대신 그린 수소로 전환 △2050 탄소 중립 구체적 실천계획 제출 △지자체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를 요구했다.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앞에서 진행된 당진기후행동에는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도 참여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적극적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현대제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은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2019년 기준 당진 화력이 2966만 톤, 현대제철이 2245만 톤, 현대제철 부생가스로 발전하는 현대그린파워가 1084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넘는다.

이날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막아내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게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제철에 대해 “석탄을 사용하여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고로 방식의 제철 공정에서 그린 수소를 사용한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상임의장은 “더 이상 우리별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후 행동에 나섰다”며 “국내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역인 당진에서 앞장서 2030 탈석탄,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은 당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기후위기는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충남행동과 함께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30 탈석탄,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적인 기후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출처: 당진신문 >



세계지구의날, 당진천 벚꽃길 가꾸기 20주년 기념

'벚꽃길 걷go, 건강 챙기고go, 지구 생각하go'



지난 4월 17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어름수변공원에서 당진천을 걸으면 쓰레기 정화 활동을 가졌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지구의 날과 당진천 벚꽃길 가꾸기 20주년을 기념해 4월 17일(토) 오전 어름수변공원에서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천 벚꽃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벚꽃길 걷go, 건강 챙기고go, 지구 생각하go' 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당진환경연합 회원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로 계획됐으나 당진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 신청이 이어져 이날 행사는 시민참여행사로 진행됐다.

매년 4월 22일은 세계 지구의 날이다. 또한 올해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당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당진천에 벚나무를 심기 시작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19년까지 매년 지구의날을 맞아 지역의 여러 단체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당진천 벚꽃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당진천 벚꽃길 걷기 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 인원별로 당진천 벚꽃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벚꽃길 걷go, 건강 챙기고go, 지구 생각하go'를 진행하게 됐다. [글:사무국]



자원순환,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한달 동안 아이스팩·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4월 한달동안 에코생협 당진점에서 아이스팩과 병뚜껑 모으기 환경 실천을 진행했다.



에코생협 당진점에 모인 아이스팩

세계 지구의 날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에코생협 당진점과 함께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아이스팩과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사업을 진행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아이스팩과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됐다.

아이스팩과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오면 EM(유용미생물) 세탁비누로 교환해 주는 이번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520여 장의 세탁비누가 아이스팩과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교환됐으며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콤팩트와 공기정화식물 '카랑코'도 선물로 지급됐다.

모아진 아이스팩은 당진시자원봉사센터로 보내 깨끗이 씻어져 당진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달됐으며 플라스틱 병뚜껑은 에코생협을 통해 서울로 보내져 치약 짜개 등의 원료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51회를 맞은 세계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미국에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에서 비롯된 환경기념일이다.

[글: 사무국]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경제손실 최대 58조 원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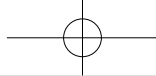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 돈뭉치를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에 투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대신 국민들은 석탄발전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산, 심혈관질환, 폐암, 조기사망 등 건강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앞에서 충남 및 세종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함께 참여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은 세종을 비롯해 전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



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대기오염에 관한 국제연구기관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19일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대 3만5천명의 조기사망, 건강 피해 등 경제손실이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국민연금 대전세종지역본부를 방문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제안서’를 전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는 단순한 투자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출처: 당진신문〉



당진지역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전국 9위

현대제철·알테크노메탈·휴스틸 순 민간환경감시센터 보고서 발표

당진지역의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센터장 유종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8년도 당진지역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지역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347톤, 이동량(폐수 또는 폐기물을 주소지가 다른 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 이동시킨 양)은 2만5595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과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포항시와 전남 광양시, 경기 이천시 순이다. 충남지역에서는 당진시에 이어 서산시가 전국 10위를 기록했다.

전국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합계 순위에서는 당진지역 사업장인 현대제철이 1만 4640톤으로 전국 7위로 나타났다. 또한 당진지역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소재한 알루미늄 합금 생산기업 (주)알테크노메탈이 4802톤으로 전국 17위로 집계됐다. (주)알테크노메탈은 정제유와 LNG를 사용해 용해로에서 고열로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하지만 배출량만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현대제철은 전국 243위, 알테크노메탈은 367위로, 화학물질 배출량보다는 이동량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만 살펴보면 당진지역에서는 LNG 복합화력발전소인 GS EPS(주)가 가장 많았으며, 현대제철과 현대그린과워, 당진화력이 그 뒤를 이었다.

유종준 센터장은 “현재 환경부는 화학물질 전체를 합산해 집계하고 있다”며 “화학물질도 물질별로 인체유해성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우선순위로 관리하고 집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당진시대〉

2018년 당진지역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단위 : (kg/year)

	업체명	배출량	자가매립량	이동량	합계
1	현대제철(주)당진일관제철소	41,689	0	14,597,870	14,639,559
2	(주)알테크노메탈	23,241	0	4,779,037	4,802,278
3	(주)휴스틸	2,375	0	2,159,852	2,162,227
4	희성피엠텍(주)	26	0	789,064	789,090
5	(주)태진스틸산업	930	0	695,628	696,558
6	(주)SIMPAC 당진공장	1,400	0	628,200	629,600
7	(주)삼우산세공장	144	0	480,134	480,278
8	환영철강공업(주)	270	0	415,400	415,670
9	대한전선(주)당진공장	34,383	0	198,761	233,144
10	서울경금속당진지점	7,500	0	217,002	224,502



2018년 전국 상위 20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단위: (kg/year)

순위	업체명	배출량	자가매립량	이동량	합계
1	(주)포스코(포항제철소)	46,907	0	221,708,934	221,755,841
2	(주)포스코광양제철소	45,819	0	127,102,062	127,147,881
3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48,371	0	92,416,504	92,464,875
4	삼성전자(주)화성사업장	370,005	0	77,371,945	77,741,950
5	주식회사 DB메탈 동해공장	9,715	0	51,366,174	51,375,889
6	(주)LG화학대산공장	57,343	0	19,151,667	19,209,010
7	현대제철(주)당진일관제철소	41,689	0	14,597,870	14,639,559
8	SK하이닉스(주)	10,127	0	13,876,512	13,886,639
9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주) 진천사업장	221,084	0	11,369,405	11,590,489
10	삼성전자(주)기흥	121,674	0	11,204,087	11,325,761
11	삼성전자(주) 평택사업장	167,997	0	8,416,913	8,584,910
12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23,931	0	7,785,433	7,809,364
13	(주)AVATEC	2,288	0	7,316,718	7,319,006
14	(주)유한화학	33,205	0	5,792,366	5,825,571
15	주식회사천보	14,625	0	5,333,429	5,348,054
16	노벨리스코리아주식회사	60,634	0	4,743,189	4,803,823
17	(주)알테크노메탈	23,241	0	4,779,037	4,802,278
18	현대중공업(주)본공장	4,031,922	0	732,738	4,764,660
19	LG화학오창1공장	33,494	0	4,433,158	4,466,652
20	SK에너지주식회사	69,868	0	4,375,662	4,445,530

2018년 시군구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단위: (kg/year)

순위	기초단체	배출량	자가매립량	이동량	합계
1	경북 포항시	421,848	-	232,430,432	232,852,280
2	전남 광양시	311,892	-	127,546,006	127,857,898
3	경기 이천시	346,716	-	97,133,177	97,479,893
4	경기 화성시	4,182,599	-	85,223,046	89,405,645
5	강원 동해시	26,997	-	51,366,174	51,393,171
6	충북 청주시	1,670,799	-	32,102,747	33,773,546
7	경기 안산시	1,939,663	-	31,594,257	33,533,920
8	울산 울주군	1,009,710	-	25,126,510	26,136,220
9	충남 당진시	347,312	-	25,594,674	25,941,986
10	충남 서산시	434,397	3,141	25,041,673	25,479,211



"서산민항 유치,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 위반하는 모순"

충남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통해 유치 중단 요구

충남도가 군 비행장 민항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민항 유치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 역행하는 서산민항 추진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9일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모인 지방정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 실적을 공동으로 선언한 뒤 서산의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조기 추진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서산의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조기 추진은 앞서 선언한 탄소중립 이행에 역행하는 일로 충남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9일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거론한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4월 28일 청와대를 찾아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지원까지 요청하고 나섰다"면서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충남도민으로서 매우 실망스럽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개발만능'의 근대적 망상,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부추겨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이면을 보는 것 같아 무척 씩씩하다"고 밝혔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민항유치가 탄소중립 선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원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해선복선전철(평택 청북면)과 KTX 경부선(화성 향남면)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최근 발표한 제4차 국토철도망 국가계획안에 반영됐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민항 유치가 과연 절실하냐는 것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 따른 결정이다.

끝으로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남도는 수많은 석탄발전과 제철소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광역자치단체"라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충남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말로만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충남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서산민항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1인 시위



당진환경운동연합은 4월 28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시위는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25곳의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 및 1인시위 형태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펼쳤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4월 28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충남도 내 250여 환경·시민 사회단체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남 255개 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배출 '규탄'

충남도 내 250여 환경·시민사회단체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방사능 왜란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와 도내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여 명은 22일 도청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포함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 범시민·사회단체' 명의로 낸 이번 성명에는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32개 단체,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125개 단체,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14개 단체, 기후위기충남행동 31개 단체,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개 단체,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40개 단체 등 총 255개 단체가 참여했다.

충남 범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철저하게 자국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방사성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200일 만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 340일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며 "각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과 다양한 먹거리 오염 위험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공포와 불안, 나아가 국가적 경제 리스크로 이어지는 위기가 필연적으로 예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일부 발췌〉



기후정상회의, 대통령은 준비한 것이 없었다

해외 석탄투자 중단과 NDC 상향, 공허한 약속일 뿐 석탄발전 투자 철회와 '2030 온실가스 절반' 약속해야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해외 석탄 공적금융 지원 중단'과 '올 하반기 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상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해외석탄발전소의 '투자를 철회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 절반'에 준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했어야 한다.

이미 작년, 정부 각 부처와 한전이 향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언은 실상 새로운 것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게다가 이번 선언에는 현재 투자 중인 베트남 봉양 2, 인도네시아 자와9·10 등의 대형 해외 석탄발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석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한편, 국내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선언으로도 한국은 '세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연내 NDC 상향' 선언 역시, 어떤 진전도 새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정부는 작년 12월 UN에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을 위반한 목표를 제출함으로써,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비해 어제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중국은 2005년 대비 60%, 일본은 2013년 대비 46%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역시 1990년 대비 55% 이상의 감축을 선언했으며,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계가 기후대응을 위해 속속 진보된 감축을 선언하는 이 때, 한국은 아직도 공허한 말잔치를 되풀이하며 감축을 후속 과제로 미루고만 있다.

결국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두 선언은 모두 새로운 것 없는 기존 선언의 되풀이일 뿐이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모자란 알파한 외침에 불과하다. 이번 선언은 현 정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 언젠가 처리해야 할 '후순위의 정책 과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지금과 같은 그런 위상 선언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021. 4. 23.
환경운동연합



지구를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 열어
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공동행동에 맞춰 4월 15일 당진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홍중호 공동대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들이 한국사회와 생태계, 국토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고 비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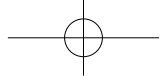
부산, 울산, 경남환경운동연합도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전 시민적, 전 지역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덕 산지의 극상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에 파국적 생태 재앙을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공동행동에 맞춰 4월 15일 당진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글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4월 15일(목)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 마당과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에서 동시에 진행된 출정식과 함께 전국 40여개의 지역환경연합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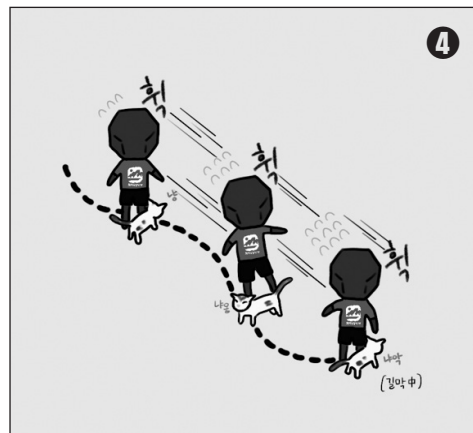


석탄씨를 구해줘

석탄씨를
구해줘

고양이와 기후변화

9화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석탄씨를 구해줘

고양이와 기후변화

9화

6

그치만 지금 이순간에도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있는 다른 석탄들을 생각하면 그럴 순 없겠지.

그리고 언제까지나 밀크와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려면 기후변화도 반드시 막아야 해.

갑자... 아니 밀크야 넌 내가 지킨다!

7

아, 어느틈에 폴짝

8

안돼애 돼애애 애애애

<시스템 종료>

9

괜찮아 밀크야...

아, 아니 관심도 없구나 너는. 기후변화도, 내 서명사이트도. ㅎㅎㅎㅎㅎ...

가랄게 불태워...

그냥~

시즌 1 끝

BONUS CUT

김석탄이 알려주마 bit.ly/no_coal 에 접속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석탄 활동가입니다. 세 달의 씁쓸한 연재를 끝내고 드디어 수습해제 되었습니다★ 다음주부터 저는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중의 휴재 뒤에 8월 23일 토요일, 밤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10

화재운동연합



충남 에너지전환 활동가 워크숍

4월 7일~9일까지 충남 에너지전환 활동가들이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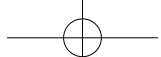
지구의날 기념 당진천 벚꽃길 정화 활동

4월 17일 어름수변공원에서 당진천 벚꽃길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이날 당진시민 봉사자분들과 회원분들 130여명이 함께 당진천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지구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삼교호 수질 개선 캠페인

4월 20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농어촌공사와 비료, 농약, 퇴비 등으로 오염된 삼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공포천 입구 농수로에서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한 삼교호 살리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당진에너지전환포럼 운영위

4월 21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당진에너지전환포럼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구의날 기념 기후위기 당진행동

4월 22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앞에서 2030 탈석탄과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기후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늘푸른물결' 5월호 소식지 편집회의

4월 27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늘푸른물결'소식지 5월호 편집회의를 열었습니다.



2021년 4월 결산보고서 (사업기간: 2021년 4월 1일 ~ 4월 30일)

수입액

[항명]	[목명]	수입집계	비고
이월금	3월 이월금	16,167,159	전월이월금
회원회비	개인회비	5,910,000	CMS, 자동이체, 지로, 특별회비
	[항]집계	5,910,000	
후원금	일반후원	92,960	개인 후원금
	재정사업	0	후원금
	[항]집계	92,960	
사업수입	회원사업	0	회원사업
	공모사업	4,000,000	공모사업
	기타사업	0	기타사업 수입
	[항]집계	4,000,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항]집계	0	
월수입 총액	계	10,002,960	
수입 총액	계	26,170,119	전월이월금 포함

지출액

[항명]	[목명]	지출집계	비고
경상비	제세공과금	177,410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전화료, 전기료, 신문대금,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259,300	관리비, 집기구입, 차량수리비, 실내등유, 커피구입 등
	자산취득비	0	비품, 자산구입
	복지후생비	211,000	업무추진비, 식대 등
	[항]집계	647,710	
인건비	급여	4,330,000	상근자 2인
	상여	0	
	퇴직적립금	360,840	
	사회보험료	495,960	
	[항]집계	5,186,800	
사업비	일반, 공모사업	831,260	공모사업, 석탄화력, 송전탑, 등 현안사업 준비
	조직, 회원사업	846,600	총회, 소식지 인쇄 및 발송, 운영위 및 편집위원회, 함길구독 외
	정책, 조사사업	30,000	교육 및 정책사업비
	연대사업비	863,350	중앙 분담금, 연대사업, 충남환경연합 분담금 등
	기획재정사업	0	후원의밤
	[항]집계	2,571,210	
기금조성비	장기발전기금	100,000	장기발전기금
	[항]집계	100,000	
지출총액	계	8,505,720	

2021년 4월 잔액 17664399



01 일반사업

- ❖ 5/01(토) 14:00 임시 전국대표자회의 - 온라인
- ❖ 5/03(월) 11:00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 ❖ 5/04(화) 18:30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5/06(목) 10:00 기후위기 충남행동 운영위 회의 - 온라인
- 13:30 충남에너지전환포럼 - 충남도의회
- 14:00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 세미나 - 온라인
- ❖ 5/07(금) 11:00 에코생협 당진점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14:00 환경연합 공익법인 추진 설명회 - 온라인
- ❖ 5/11(화) 14:00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회 회의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 16:00 전력망과 탈석탄 세미나 - 온라인
- ❖ 5/12(수) 11:00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회의 - 당진지속협
- ❖ 5/14(금) 10:30 지구의날 행사 평가 회의 - 당진지속협
- ❖ 5/17(월) 14:00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이사회 - 온라인
- ❖ 5/18(화) 15:00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의 - 충남지속협
- ❖ 5/19(수) 10:00 탈석탄 도보행진 - 신서천화력
- ❖ 5/20(화) 10:00 충남도 노동정책 추진단 회의 - 충남도노동자복지회관
- 13:00 석탄을 넘어서' 탈석탄 공동행동 - 인천터미널
- 16:0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 회의 - 장소 미정
- ❖ 5/25(화) 10:00 찾아가는 에너지 환경교육 - 신촌초
- ❖ 5/29(토) 09:00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살리기 플로깅 - 석문호 주변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5/25(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새내기 회원

김광수(석문면), 김정아(신평면)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삼옥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운 김광태 김광호 김관기 김기권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환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옥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근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태기 김필배 김하정 김현기
 김현림 김현자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성호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경자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영환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대식 박현순 박호완 박 훈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방차옥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지현 선 오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환 송창병 송하중 송형식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신현환 심승보 심재권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동책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자호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수 오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경라 유미화 유 성 유영석 유종준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봉기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성남 이수현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규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선 이정옥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충휘 이혜선 이해운
 이현남 이현숙 이호경 이호선 이홍숙 인남교 인만교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옥출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외철 정유영 정종환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정한영 조강호 조대연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주은자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기승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묵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철수 허인욱 호상기
 호용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명옥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귀염둥이아띠어린이집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혜송

탈석탄 배달부

신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2021 충남 탈석탄 도보 행진

2021년 5월 30일~31일, P4G(녹색 경제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국제협의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파리협정에서 세계가 약속한 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가동 예정인 신서천화력발전소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30 탈석탄과 신규 신서천화력발전소 중단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도보 행진과 엽서쓰기가 진행됩니다. 함께 해 주세요.

<참여방법 ①> 탈석탄 배달부 도보 행진

◇ 일정 : 2021년 5월 19일(수) 9시~14시

◇ 코스 : 신서천화력발전소 출발 ~서천군청 도착

탈석탄배달부

<참여방법 ②>

탈석탄 배달부 엽서 쓰기

◇ 5월 10일(월) ~27일(목)

◇ 온라인 참여

<https://ko.surveymonkey.com/r/NVGY83R>

(검색창에 '탈석탄 배달부 엽서쓰기'를 검색해 주세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기후위기 충남행동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살리기 플로깅

당진의 바다와 호수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정화 활동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자	장소	세부 내용
5월 29일(토)	도비도	도비도 주변 해안가 쓰레기 청소
6월 26일(토)	석문호 주변	석문호 주변 쓰레기 청소
8월 28일(토)	삼교호 주변	삼교호 주변 쓰레기 청소
9월 25일(토)	왜목마을	왜목마을 주변 해안가 쓰레기 청소

※ 일자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세부계획

- 출발 장소 : 당진문예의 전당 / 오전9시
- 세부 일정
 - 09:00~09:30 플로깅 장소로 이동(버스)
 - 09:30~11:30 플로깅 진행
 - 11:30~12:00 도착
- 참가신청 : 선착순 35명(041-355-7661)
- 자원봉사 3시간 적용



2021년 환경의날 기념 행사 즐거운 지구생활 '재활용품 화분만들기'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날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사용을 높이기 위한 행사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6월 5일(토) 10:00 ~16:00 ○ 장 소 : 남산공원 분수대 광장 앞
- 참여대상 · 인원 : 행사 참가 가족과 일반 주민 등 250명
- 참여방법 : 사무실 355-7661
 1. 참여하고 싶은 시간 신청하기 (10시부터 한시간 단위 신청, 12시~13시 제외)
 2. 집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해 화분 만들기(지름 15cm이상)
 3. 신청한 시간에 오면 공기정화식물 심기
(기발한 아이디어로 화분을 만들어 오면 시간당 5명을 선정해 상품 제공)
 4. 코로나로 인해 반드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알림-

'늘푸른 물결' 소식지를 종이 소식지 대신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회원님께서서는 이메일주소를 355-7661(문자가능)이나 전화주시면 우편 배송을 취소하고 매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으로 발간되었습니다.